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뿌리내린다

남구, 행정수요 반영한 불합리 규제 개선 등 추진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직무태만 등 엄중 조치도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공직사회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광주 남구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환경 급변과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구는 이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 승진기간 단축, 실적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 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업무 행태를 바로잡고, 법령 및 지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게 남구의 목표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는 기준을 세운만큼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은 주민 또는 구청 내 부서에 의해 이뤄지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인 기획실 및 적극행정 업무부서 참여에 의한 실적 검증 등 사실조사를 거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동수기자

서구, EM발효공급기 시범 설치

광주 서구가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 EM발효공급기를 시범설치하고 EM발효액 공급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엠(EM)은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악취제거 등에 탁월해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유용한 미생물이다. 설거지·세탁·욕실청소 시, 합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설치된 발효공급기는 1회에 500ℓ의 EM발효액이 생산되며 주민들은 빈 페트병을 가져와 1.8ℓ씩 담아갈 수 있다.

EM발효액은 월 2회 생산되며 매월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공급을 개시해 9시부터 20시까지 수령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EM발효공급기 설치로 서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5년부터 자치구 중 유일하게 EM발효액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가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긴급 생계 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6일 오전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5월8일까지 신청하는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하면 26만여 가구가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동구, 여가부 '돌봄공동체지원 사업' 선정

4천500만원 지원…지역사회 자발적 돌봄 기대

광주 동구는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돌봄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여성친화도시 등을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동구는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품앗이형인 용산지구 공동육아나눔터의 '다함께 키움', 공동체형인 '동구&동아's', '지음&지음' 등 3개 공동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돌봄 활동비 4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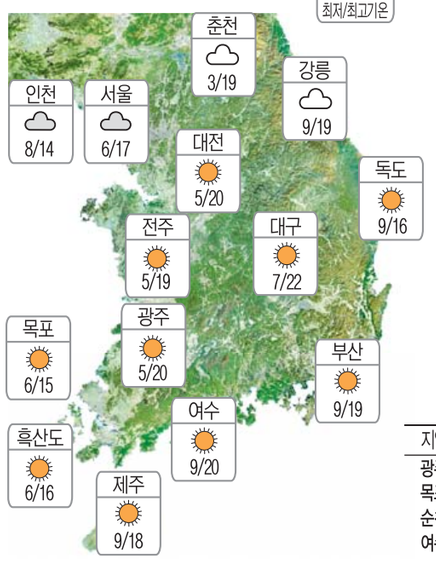
'다함께 키움'은 주2회 아파트 돌봄 품앗이공동체를 운영하고, '동구&동아's'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일반·다문화가정 아동들과 함께 '아시아의 집밥 엄마의 레시피', '아시아문화를 배워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음&지음'은 만12세 이하 일반·시설아동들을 통합해 환경문제 인식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전통놀이교육, 수영장 이용아동 간식부스운영 등 각각의 공동체 특색에 맞는 틈새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공동체 지원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양성 ▲분기별 네트워크 마을행사 등을 운영한다.

동구는 이번 돌봄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친화적인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지기자

오늘의 날씨

▶범례 지역 / 날씨 최저/최고기온



해뜸 06:11 해짐 18:59
달뜸 17:50 달짐 05:50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 마스크 챙기세요
- 빨 래 80 — 야외건조 좋아요
- 세 차 80 — 세차하기 좋은날
- 운 동 80 — 준비운동은 충분히

지역	강수확률(%)
광주	0-0
목포	0-0
순천	0-0
여수	0-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1:19 13:50	06:45 19:12
여수	08:43 21:03	02:20 14:43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서-서/0.5-0.5m
	먼바다	남서-서/0.5-1.0m
오후	앞바다	남서-서/0.5-0.5m
	먼바다	남서-서/0.5-1.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0.5m
	먼바다	서-북서/1.0-2.0m
오후	앞바다	서-북서/0.5-1.0m
	먼바다	서-북서/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4월 8/수	(5/18)	(4/15)	(7/13)	(4/17)	(7/18)	(9/17)
9/목	(6/16)	(5/16)	(4/13)	(3/17)	(5/18)	(10/16)
10/금	(6/17)	(6/17)	(4/14)	(5/17)	(6/17)	(9/16)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5·18 4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 유튜브 공모전

'청소년이 바라보는 5월의 영웅' 최우수상

5·18 4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 유튜브 공모전에서 김온유(16)군이 제작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5월의 영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6일 제40주년 5·18기념행사 유튜브 동영상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작으로 발표했다. 최우수상 '청소년이 바라보는 5월의 영웅'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금남로에서 희생된 시민들을 포스트잇을 활용한 인터벌 촬영기법으로 제작해 '5월의 그 날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은 배유미씨의 '스케치 여행'과 구산하씨의 '오월, 그날의 숫자들'이 선정됐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제40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 유튜브 공모전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최환준기자

북구, 재난피해 지원 '생활안전보험' 시행

광주 북구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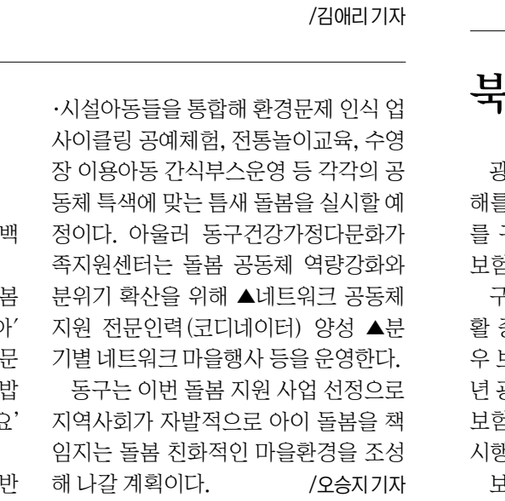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 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천만원, 온열질환진단금은 1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최환준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패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38
개 설 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점 포 수 : 340곳
· 시장면적 : 10,563㎡

· 주요취급품목
– 생식품(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품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정넘치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